

프로그램의 운영변수와 외부환경이 프로그램 효과에 미치는 영향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노혜련* · 김수영** · 김영란***

초 록

본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운영변수와 외부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 경기지역의 3개 초등학교와 13개 중학교의 총 1,039명의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영변수와 관련해서는 참여자가 학년이 어릴수록,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 간에 의사표현과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질수록, 그리고 학생들이 프로그램 진행 장소와 시간이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프로그램 실행기간이 단기일 때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환경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급 내 학생들 간에 폭력이 적게 일어나면 날수록, 그리고 학교교칙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수록 프로그램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학교환경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준다. 운영변수 중에서는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수준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외부환경과 관련해서는 학교분위기를 측정하는 3가지 변수가 모두 프로그램의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학교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프로그램의 효과, 프로그램의 운영변수, 프로그램의 외부환경,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교신저자.
***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기획연구팀장.

I. 서 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 여러 사회단체들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실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에 들어서야 개발¹⁾이 시도되고 효과성 평가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가연구의 대부분은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연구자가 개발한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여겨지는 변수들을 측정하여 의도된 변화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김상곤·정연정, 2005; 장금순, 2005; 허승희·최태진, 2008).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의 내용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와 진행자의 특성, 진행방식 및 물리적 여건과 같은 운영변수와 프로그램의 외부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평가연구는 대부분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운영과 외부환경 관련 변수들을 간과하고 있어 프로그램 내용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루빈과 바비(Rubin & Babbie, 1989: 248)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해당지역의 인구, 환경과 과정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특성과 상황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운영과 외부환경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외적 타당도 즉 어떤 하나의 현장에서 밝혀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른 새로운 현장에서도 일반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를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효과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 효과는 참여자인 학생들의 특성, 프로그램 진행자의 특성, 프로그램의 진행방식과

1) 국내 주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으로는 학교폭력예방재단(2002)에서 개발한 ‘무지개’, ‘친구야 놀자’, 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5)의 ‘작은 힘으로 생각해봐’, 삼성생명 공익재단(2005)의 ‘한번 더 생각해봐’, 서울대학교 발달심리연구소(2006)에서 개발한 ‘시우보우’, 한국교원개발(2007)의 초등학생대상의 시청각 예방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물리적 여건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 내 교사의 태도,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와 학교 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과 같은 학교 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이 프로그램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참여자의 연령과 성별, 진행자의 경력과 전문성, 프로그램의 기간이나 형태 등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Wilson, 2000; Park-Higgerson, Perumean-Chaney, Bartolucci, Grimley & Singh, 2008; 유평수, 2005; 정미경, 2008). 또한 프로그램의 진행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참여자와 진행자 간의 높은 수준의 쌍방향 활동과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독려가 학교 기반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ole, Mazeroll & Rombouts, 2008; Friedman, Friedman and Glickman, 1986). 학교 분위기가 프로그램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실증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또래폭력의 원인으로서는 학교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고(Askew, 1898; Williams, Stiffman and O'Neal, 1998; 김은영, 2008 재인용) 학교분위기가 또래폭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이상균, 1999; 김은영, 2008; 이은희, 2009). 그 외에도 여러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학교의 환경과 학급 간의 차이,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상황 등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Farrell, Meyer, Kung & Sullivan, 2001),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증진시키는 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더 촉진될 수 있다고 (Remboldt, 1998; Farrell, et al., 2001 재인용)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프로그램 효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양한 방식의 조합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외부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변수와 외부환경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운영변수와 외부환경이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운영변수 즉 참여자의 특성, 진행자의 특성과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의 물리적 여건과 외부환경 요인 즉 학교 분위기(교사의 태도,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 및 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는 프로그램 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운영과 외부환경 변수 중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운영방안과 학교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물론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등과 같이 학교를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는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해 이루어진 실증적인 연구 중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변수와 외부환경 요인들에 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본 절에서 검토하는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프로그램들은 그 목표와 내용 및 참여자의 특성 등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연구결과들을 곧바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모두 학교를 기반으로 실시된 예방프로그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변수와 외부환경 요인들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형성하는데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1. 국외 연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기반 예방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과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이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외부환경 등에 관한 내용은 주로 여러 문헌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 기존연구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연구도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평가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폭력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위해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할 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Farrell et al., 2001). 이 연구에서는 학교라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폭력예방프로그램의 건설한 평가를 위해서는 잠재적 조절변수(potential moderator variable)에 주의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진행과정과 관련된 사항들과 수행되는 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운영과 외부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자의 성별과 학급 간의 차이, 프로그램 진행자 관련 변수, 학교규모의 차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 등과 같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와 특성이 조절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분위기도 프로그램 효과를 조절하는 요인이 되는데 학교가 구성원들 간의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증진시키는 분위기를 가진 경우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mboldt, 1998; Farrell et. al, 2001 재인용).

메타분석 연구로는 1967년부터 1999년까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관련한 연구물 145개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참가대상자의 연령, 프로그램이 학생이 갖고 있는 문제행동의 수준, 프로그램의 기간, 프로그램의 형태 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ilson, 2000). 구체적으로는 참가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공격적 행동과 같은 문제가 있는 학생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진행에 특별히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는 197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에서 실시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26개의 연구를 선정하여 효과성을 메타 분석한 것이 있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들의 고찰을 통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특성들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이 위험집단 아동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외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을 경우, 이론에 기반 하지 않은 프로그램인 경우, 학급차원에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한 단순모형일 경우, 그리고 10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Higgerson et al., 2008).

한편 1990년 이후 실험설계 연구방법을 사용한 58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불법약물

중독예방을 위한 학교기반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 분석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특징을 고찰한 연구도 있었다. 연구 결과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은 전형적으로 높은 수준의 쌍방향의 활동, 집중적인 시간배정과 일반 학생까지 포함한 보편적 접근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프로그램을 일반 학생과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좀 더 어린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으며, 특정 대상을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좀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ole, Mazeroll & Rombouts,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약물사용 감소 프로그램(30 drug-free outpatient programs for adolescents)에 참여한 청소년 5,789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수가 많을수록, 프로그램을 학교중퇴자만을 위해 특별하게 운영되는 학교에서 진행했을 경우, 예산이 많을수록, 2년 이상 청소년 약물남용관련 일을 해온 상담가나 치료사가 있었을 경우, 그리고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독려되었다고 참여자가 인식했을수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iedman et al., 1986).

마지막으로 한 연구에서는 폭력을 포함한 비행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진 149개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았는데 그 결과 교육이나 상담과 같은 하나의 개입전략이 별도로 이루어졌을 때는 학생들의 비행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학생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학생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학습지원, 부모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학급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개입, 학급운영에 대한 교사교육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효과적이었다. 또한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비행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ttfredson, 1997).

2. 국내 연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는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한 후 프로그램이 목적인 바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하는 식으로 주로 진행이 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참여한 집단

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분석하는 형태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김상곤·정연정, 2005; 장금순, 2005; 허승희·최태진, 2008). 따라서 프로그램의 외부환경이 프로그램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운영변수가 프로그램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만 소수 있을 뿐이다.

먼저 도시와 농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학교폭력 유형별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의 성별과 거주 지역, 성적에 따라 학교폭력의 유형별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영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평수, 2005).

또한 한국교원개발원에서 개발한 초등학교 학생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 대신 일선 학교 교사가 직접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총 4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당 15분 내외의 동영상만을 시청하는 방식 또는 동영상을 시청하되 교사의 지도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 두 가지로 고안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특성과 지역, 진행방식 등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연령이 어릴수록, 여학생일수록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대도시, 중소도시)과 학교폭력 발생가능성의 수준(높은 집단, 낮은 집단),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진행방식(동영상만을 시청하는 방식, 교사의 지도활동이 수반된 방식)과 동영상의 시청방법(4일 동안의 집중적인 시청방법, 4주에 걸쳐 분산된 시청방법)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정미경, 2008).

한편 최근에 이루어진 이봉주 외(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성과를 중간적 성과(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폭력대처능력)와 궁극적 성과(학교폭력 발생율, 학교에 대한 안전감)로 구분하여 참여자 특성을 통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지표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간적 성과의 경우 부모와의 유대, 학교성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궁극적 성과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성별과 경제수준, 친구 수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의 연구결과들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과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환경과 방식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반드시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프로그램

본 연구의 대상 학생들이 참여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점검하고, 폭력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탐색하여, 구체적인 생활기술을 연습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체 프로그램은 16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와의 협외가 늦어져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학교의 경우 학교여건상 장기세션의 진행이 불가하여 4차시로 축소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16차시 프로그램은 크게 폭력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 폭력의 세 가지 입장, 갈등이해, 문제해결기술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차시 프로그램은 폭력에 대한 가치관, 폭력의 세 가지 입장, 문제해결기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교구와 교재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동일하게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나 진행자의 재량에 따라 각 프로그램 회기별 주제에 적합한 교구나 프로그램 활동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본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해 사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학교 내 상주하는 학교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교육전문가 10명과 학교 외부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시간은 대체로 해당학급의 창의재량시간이나 H·R시간(40분~45분)을 이용하였으며, 일주일간격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장소는 교실과 시청각실, 도서실 등이었다.

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 경기지역의 3개 초등학교 및 13개 중학교 총 1,136명의 학생이었고,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05년 9월부터 12개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자기보고 응답방식의 설문을 이용한 프로그램 사전조사과 사

후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서울·경기지역의 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가능하면 다양한 경제적 수준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반 전체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였다. 설문조사가 시행된 시점은 프로그램 처음 시작과 종결시점이었으며 프로그램 진행자가 실시토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중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응한 1,056명의 설문지중 결측치가 없는 1,039명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3. 조사도구와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프로그램의 효과로 참여자가 지각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의미한다. 구체적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폭력해결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처능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질문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크게 운영변수와 외부환경변수로 구분하여 총 12개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운영변수는 3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참여자 특성, 진행자 특성과 진행방식, 물리적 여건으로 살펴보고, 외부환경은 학교분위기라는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은 진행방식이나 장소나 시간의 적절성 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경험 한 후에 응답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흐려지거나 왜곡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연구에 포함된 각 변수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특성

참여자 특성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학년,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참여자의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은 크릭(Crick, 1997)의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경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 고의적인 따돌림, 위협 등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각각 10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있고, 지난 한 학기동안 이러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전혀 없음(1점)에서 자주 있음(4점)으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가해경험의 경우에는 Cronbach's $\alpha = .79$, 피해경험의 경우에는 Cronbach's $\alpha = .85$ 로 확인되었다.

(2) 진행자 특성과 진행방식

프로그램 진행자의 특성으로는 먼저 진행자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진행경험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학생이 참여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이전에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한편 진행방식은 진행자와 참여자 간 그리고 참여자 상호간에 의사표현과 대화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2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간의 의사표현과 대화가 더 자유롭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진행방식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3) 물리적 여건

물리적 여건은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물리적 환경과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행장소의 적절성, 진행시간의 적절성, 프로그램 실행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진행장소와 시간의 적절성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장소와 운영시간의 적절성 정도를 질문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하였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실행기간은 16차시인 경우 장기로,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4차시로 축소할 경우 단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 학교분위기

학교분위기는 교사의 태도,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와 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김혜진(2002)과 김예성(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응답자의 연령(초5~중2)을 고려하여 축소·재구성하였다.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태도로 학생에 대한 관심과 공정한 태도,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학교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묻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공정하게 대하고 있으며 또래폭력문제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직접 개입하는 등 학교폭력의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는 학급 내 학생들 간에 폭력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척도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급분위기가 폭력적임을 의미한다. 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교칙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척도 신뢰도는 교사의 태도는 Cronbach's $\alpha = .53$,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는 Cronbach's $\alpha = .62$, 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은 Cronbach's $\alpha = .74$ 로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과 함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척도로 명명된 요인의 전체변량을 최하 37.47%(학교폭력 가해경험)에서 최고 79.86%(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 설명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의 분석방법은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각 변인간의 관계 및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수인 프로그램의 효과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과 관련해서는 신뢰도 분석과 구성타당도의 확인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표의 코딩과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15.0을 통해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1. 기술적 분석

1) 참여자의 특성

먼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학생은 3개 초등학교의 5학년과 6학년 209명(남=107, 여=101)과, 13개의 중학교의 1학년과 2학년 830명(남=437, 여=388)으로 총 1,039명이었다. 연구대상 학생들은 지난 한 학기동안 학교에서 폭력을 가해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묻는 10개의 문항에 대해 응답을 '전혀 없음'이라고 했을 때는 '경험 없음'으로 하고 그 외의 응답은 '경험 있음'으로 변환하여 학생들이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몇 개의 문항에 대한 경험을 했는지 알아 본 결과, 가해경험은 평균 4.72개 문항, 피해경험의 경우에는 평균 3.54개 문항에 대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가해경험에서는 중학생이, 피해경험에서는 초등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1 참조)²⁾.

2) 학교폭력의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의 비율은 가해경험의 경우 3.1%, 피해경험의 경우 10.0%였다. 한편 폭력의 양태별로 가해와 피해경험내용을 살펴보면, 가해경험의 경우 욕설이나 놀리는 행위가 각각 89.0%와 85.5%였고, 때리거나 무시한 경험은 각각 72.5%와 72.1%로 비교적 단순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은 대다수가 가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의 경우도 욕설과 무시를 받은 경험이 각각 80.8%, 69.4%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경험도 55.8%로 높아 가해경험과 동일하게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 부분에서 피해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여자의 특성

(N=1,039)

구분	전체평균(SD)	집단평균비교		
		초등학생 (N=209)	중학생 (N=830)	t
학교폭력 가해경험 ^{a,b}	3.54(2.23)	4.67	4.73	-.321
학교폭력 피해경험 ^{a,b}	3.54(2.53)	3.81	3.48	1.718

^a0부터 10까지의 결과가 가능함.

^b프로그램 사전점수임.

2) 진행자의 특성과 진행방식

<표 2>는 진행자의 특성과 진행방식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먼저 프로그램 진행자의 진행경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대다수인 815명(84.2%)이 유경험자에 의해 진행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자와 참여자 간, 그리고 참여자 간의 의사표현과 대화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진행방식은 5점 척도에 평균 3.61점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진행자와 참여자 간에, 그리고 참여자들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대화가 보통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진행자의 경험과 진행방식

(N=1,039)

구분	빈도(평균)	백분율(SD)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진행경험	있다	815 84.2
	없다	164 15.8
진행방식 ^a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수준	(3.61) (1.00)

^a1=전혀 아니다 부터 5=매우 그렇다.

3) 물리적 여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물리적 여건과 관련하여 살펴본 진행장소의 적

절성, 진행시간의 적절성 및 프로그램 실행기간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학생들은 프로그램 진행장소의 적절성에 대해 묻는 5점 척도 질문에 대해 평균 3.62점을 주었고, 진행시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평균 3.57점을 줌으로써 진행장소와 시간이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진행된 학교의 사정에 따라 16차시와 4차시로 운영되었는데, 16차시의 장기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383명으로 36.9%인 반면, 4차시로 축소된 단기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656명(63.1%)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 물리적 여건

(N=1,039)

	진행장소의 적절성 ^a	진행시간의 적절성 ^b	프로그램 실행기간	
			장기프로그램 참여학생	단기프로그램 참여학생
평균(SD)	3.62(1.07)	3.57(1.10)	-	-
빈도(%)	-	-	383명(36.9%)	656명(63.1%)

^{a,b}1=전혀 아니다 부터 5=매우 그렇다.

4) 학교분위기

프로그램의 외부환경인 학교분위기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사전에 교사의 태도,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 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으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먼저, 교사의 태도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공정한 태도를 갖고 있고,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폭력문제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직접 개입하는 등 학교폭력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지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4점 척도질문에 평균 2.64점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교사의 태도를 보통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는 학급 내 폭력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학생들은 4점 척도 질문에 평균 2.45점으로 응답하여, 학급 내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은 학교 내 교칙이 얼마나 공정하

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을 나타낸 것으로 4점 척도 질문에 평균 2.18점으로 나타나 교칙이 충분히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분위기

(N=1,039)

	교사의 태도 ^{a,b}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 ^{a,b}	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 ^{a,b}
평균(SD)	2.64(.54)	2.45(.74)	2.18(.55)

^a1=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4=매우 그렇다.

^b모두 프로그램 사전점수임.

5) 프로그램의 효과

<표 5>은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된 각 문항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를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공감이나 대화방법과 같은 대인관계 능력과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고, 실제로 학급 친구들과 더 잘 지내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총 5개의 문항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모든 문항에 대해 3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주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통 정도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중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평균 3.44)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평균 3.28)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아울러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초등학생이 프로그램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표 5>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결과

(N=1,039)

내용	전체평균 (SD)	집단평균비교		
		초등	중등	t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었다.	3.44(1.08)	3.79	3.36	5.664**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대화방법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3.36(1.08)	3.72	3.27	5.674***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돕고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3.35(1.10)	3.75	3.25	6.272***
이 프로그램은 우리들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3.30(1.13)	3.59	3.23	4.177***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28(1.14)	3.65	3.19	5.556***
전체	3.34(.98)	3.69	3.26	6.269***

1=전혀 아니다 부터 5=매우 그렇다

*p<.05 **p<.01 ***p<.001

2. 프로그램 운영변수와 외부환경이 프로그램 효과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효과에 운영변수와 외부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독립변수로 사용된 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와 공차한계(Tolerance)나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크기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상관관계는 최대치가 .667이었고, 공차한계는 모두 .10보다 높게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의 크기도 10에 근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으로 확인되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 바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로 운영변수인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프로그램 진행자의 특성과 진행방식, 물리적 여건을 투입

한 모델과 외부환경인 학교분위기에 관한 변수들을 추가한 모델 총 2개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먼저 운영변수만을 넣어 분석한 모델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독립변수 운영변수의 전체 설명변량은 35.3%이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70.3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자 특성 중에서는 참여자의 학년($\beta = -.099^{***}$)과 학교폭력 가해경험($\beta = -.067^*$)과 피해경험($\beta = -.060^*$)이 프로그램 효과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효과를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어릴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선행연구(Wilson, 2000)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프로그램 효과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실제 학교폭력의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Lipsey, 1992; Lipsey & Wilson, 1998; Wilson, 2000 재인용)는 학급의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공격적 행동의 감소를 관찰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예방프로그램처럼 학급단위로 실시되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주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이미 가해나 피해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예방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행자 특성과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진행방식 즉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수준($\beta = .254^{***}$)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행자와 참여자 간, 그리고 참여자 상호간에 의사표현과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질수록 프로그램 효과도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진행자와 참여자 간의 높은 수준의 쌍방향 활동(interactivity)과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독려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Soole, et al., 2008; Friedman et al., 1986)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표 6>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모델		1		2	
			B	β	B	β		
운영 변수	참여자 특성	학년	-.528***	-.099	-.559***	-.105		
		학교폭력 가해경험	-.067*	-.060	-.022	-.020		
		학교폭력 피해경험	-.060*	-.060	-.013	-.013		
	진행자 특성과 진행방식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진행경험 ^{a)}	.498	.037	.403	.030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수준	1.241***	.254	1.203***	.246		
	물리적 여건	진행장소의 적절성	.789***	.173	.710***	.156		
진행시간의 적절성		.812***	.183	.773***	.174			
프로그램 실행기간 ^{b)}		.664*	.065	.651*	.064			
외부 환경	학교 분위기	교사의 태도			.116*	.064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			-.290***	-.131		
		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			.390***	.119		
F			70.314***		60.943***			
R ²			.353		.395			
R ² 변화량			.353		.042			

a) 기준 변수=있음

b) 기준 변수=단기

*p<.05 **p<.01 ***p<.001

물리적 여건과 관련해서는 진행장소의 적절성($\beta = .173^{***}$)과 진행시간의 적절성($\beta = .183^{***}$), 프로그램의 실행기간($\beta = .065^*$) 모두 프로그램의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진행 장소와 진행시간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면 할수록, 그리고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프로그램 효과를 더 높이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할지라도 프로그램 효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와 시간이 얼마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Wilson, 2000)에서도 프로그램 장소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규 교실보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진행 장소와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가장

편안하고도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 장소를 제공받고, 진행시간도 학생들의 집중 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장소와 시간이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까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프로그램 실행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이 더 오랫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단기간 실행된 경우 더 효과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선행연구(Wilson, 2000)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장기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실행의 질적 수준(quality implementation)이 떨어질 때 더욱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짜임새 있게 준비되고 실행된 단기 프로그램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특히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모델 2는 모델 1에 외부환경인 학교분위기 변수를 추가한 모델로서 그 설명력은 모델 1에 비해 4.3% 증가한 38.0%이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60.943^{***}$). 모델 2에서는 참여자 특성 중 모델 1에서는 유의미한 변수로 관찰되었던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더 이상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 투입된 학교분위기 변수들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가해경험 변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나 조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사, 학급과 학교와 같이 학생들이 속해있는 환경의 영향력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진행자 특성과 진행방식 중에서는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수준($\beta=.246^{***}$)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물리적 여건 중 진행장소의 적절성($\beta=.156^{***}$)과 진행시간의 적절성($\beta=.174^{***}$)도 여전히 프로그램의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적절한 진행 장소와 시간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학생들의 외부환경으로서 학교분위기를 나타내는 교사의 태도(β

=.064*),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beta = -.131^{**}$)와 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beta = .119^{***}$)은 모두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공정한 태도를 갖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학급 내 학생들 간에 폭력이 적게 일어나면 날수록, 그리고 학교에서 교칙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프로그램 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실시되고 있는 외부 환경 즉 교사와 학급 그리고 학교의 환경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의 분위기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를 조절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수행환경이라는 선행연구(Remboldt, 1998; Farrell et. al, 2001 재인용)의 주장은 물론 폭력을 포함한 비행문제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해결되기 힘들고, 학생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부모, 교사, 학급과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Gottfredson, 1997)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최고의 효과를 보려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진행과 관련된 사항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 학급과 학교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모든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모델 2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표준화된 계수 β 의 절대값의 크기순으로 나열해 보면,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수준(.246), 진행시간의 적절성(.174), 진행장소의 적절성(.156),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131), 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119), 학년(-.105), 교사의 태도(.066), 프로그램 실행기간(.066) 순이다. 유의미한 변수들 가운데 참여자와 진행자 간의 상호작용 정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물리적 여건인 진행시간의 적절성과 진행장소의 적절성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물리적 여건 또한 프로그램 효과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밖에 프로그램의 외부환경인 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과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 교사의 태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V.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운영변수와 외부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 경기지역의 3개 초등학교와 13개 중학교의 총 1,039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한 요약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변수 중 참여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참여자의 학년이 낮을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연구대상의 연령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국한시켜 분석한 한계가 있으나 선행연구들도 같은 결과를 지지하고 있어 좀 더 어린 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운영변수 중 참여자의 특성과 관련된 또 다른 결과로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프로그램의 효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학교폭력의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 가해나 피해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예방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개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운영변수 중 진행방식 즉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 간에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수준이 프로그램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모든 변수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Soole, et al., 2008; Friedman et al., 1986)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체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예: 집단토의와 발표, 집단활동, 게임, 역할극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프로그램 실시 후 직접 학생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로, 운영변수 중 물리적 여건에서는 진행 장소와 시간의 적절성이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진행 장소와 진행시간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면 할수록 프로그램 효과도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 내용만큼 프로그램 진행할 당시 학생들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여건은 학교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자는 최적의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원이나 행정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먼저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장소와 시간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단기간 실행된 경우 더 효과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선행연구(Wilson, 2000)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장기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실행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때 더욱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산이나 시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리고 장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만큼 자원과 시간이 있을 때는 특히 참여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로, 외부환경인 학교분위기도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 분위기는 교사의 태도, 학급의 폭력적 분위기, 학교교칙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교사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급 내 학생들 간에 폭력이 적게 일어나면 날수록, 그리고 학교교칙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수록 프로그램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가 참여자의 특성과 프로그램 실행과정 상의 운영변수들뿐 아니라 학교라는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써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의 분위기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를

조절하는 중요한 환경이라는 선행연구(Remboldt, 1998; Farrell et. al, 2001 재인용)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외부환경 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모델 1에서는 학생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프로그램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 2에서 외부환경 변수가 투입된 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쇄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력을 포함한 비행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 선행연구에서도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는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학급과 학교차원에서의 통합적 접근 없이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Gottfredson, 1997).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뿐 아니라 교사, 학급과 학교 전체 등 학생을 둘러싼 학교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학교 내에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전체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주로 간과되었던 운영변수와 외부환경 변수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참여 대상 연령의 범위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구성되어 충분히 다양한 연령층을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연구결과 해석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추후연구에는 좀 더 폭넓은 연령층을 포함시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행자 특성을 진행경험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진행자가 가진 다른 여러 속성들을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시켜 연구하면 프로그램 진행자의 선발과 훈련 및 교육을 위해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질적인 가해나 피해경험의 감소, 인식의 변화, 대처능력 등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 시 프로그램 참여자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차원과 학급차원, 학교

차원에서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다차원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변수와 외부환경 변수에 대한 좀 더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상곤·정연정(2005). 고등학교 교과연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학교사회복지, 제9권, pp.61-98.
- 김예성(2000). 초등학생의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8). 학교분위기가 중학생의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26호, pp.87-111.
- 김혜진(2002).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심리적 학교환경 지각.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평수(2005). 중학생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제12권 제2호, pp.51-76.
- 이봉주·김예성·임정임(2009).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연구: 논리 모델에 기반하여.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 pp.257-281.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2009). 학교요인과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중학생의 등교공포와 교내폭력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 pp.281-304.
- 이정숙·김수진·이정자·최봉실·권영란·김보영·양야기(2008).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동, 피해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제4호, pp.481-490.
- 장금순(2005). 민속놀이를 활용한 초등학생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미경(200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허승희·최태진(2008). 초등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과 그 효과 : 가해성향아동을 대상으로. 초등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pp.175-197.
- Farrell, A. D., Meyer, A. L., Kung E. M. & Sullivan, T. N.(2001).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chool-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30 No. 1*, pp.207-220.

- Friedman, S. A., Friedman, A. S. & Glickman, N. W.(1986). Program characteristics for successful treatment of adolescent drug abuse.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ease*. Vol. 174 Issue 11, pp.669~679.
- Gottfredson, D.(1997). School-Based Crime Prevention. In L. Sherman, D. Gottfredson, D. McKenzie, J. Eck, P. Reuter, & S. Bushway(ed.), *Preventing crime: What works, what doesn't, what's promising*, 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Prepar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CJ No. 98-030).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Park-Higgerson, H., Perumean-Chaney, S. E, Bartolucci, A. A., Grimley, D. M. & Singh, K. P.(2008). The evaluation of school-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A meta-analysis.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78 No. 9. pp.465-479.
- Remboldt, C.(1998). Making violence unacceptable. *Educational Leadership*, Vol. 56 No. 1, pp.32-38.
- Rubin, Allen & Babbie, Earl R.(1989).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Soole, D. W., Mazeroll, L. & Rombouts, S.(2008). School-based drug prevention programs: A review of what work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Vol. 41 Issue 2, pp.259-286.
- Wilson, J.(2000). *Effectivenes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Application of a mean change approach to meta-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anderbilt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 of Program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Program Effectiveness : A Focus on a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Noh, He-Len* · Kim, Soo-Young** · Kim, Young-Ran***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039 students from 3 elementary schools and 13 middle schools who participated in a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in order to elucidate the effect of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program effectivenes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with respect to management factors, the ages of the participant, the degree of free communication among program providers and participants, the appropriateness of place and duration for program implementation, and the duration of the program significantly affected program effectiveness. More specifically, the more that students thought that the place in which the program was provided and the duration of the program were appropriate, the more they thought that program was effective. As for environmental factors, all three factors i.e. teacher's attitudes, levels of violence in class, and the degree of fairness and 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school rule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program effectiveness. Thus, the more students thought that their teachers cared about them, the fewer incidents of violence occurred within their classes, and the more fair and consistent they perceived the school rules to be applied, the more they tended to perceive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Such results

*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hnoh@ssu.ac.kr)

** Doctoral Student, Soongsil University(bogossiper@hanmail.net)

*** Graduate of a Master's Program, Choongang University(sweetlove52@hanmail.net)

suggest that in order for a school violence program to be effective, as much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mproving the ways in which program is provided and the school environment in general, as to the contents of the program. Of all factors, the degree of free communication among program providers and participants had the strongest effect on program effectiveness, revealing the importance of providing the program in a way that student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and contribute to. In addition, the fact that all three variables measuring the school environment were found to affect program effectiveness implies that a systematic approach to changing the school atmosphere in a positive way should occur in order to maximize program effectiveness.

Key Words : program effectiveness, program management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투고일 : 12월 7일, 심사일 : 1월 22일, 심사완료일 : 2월 9일